

박병호 vs 테임즈 ‘1루수 황금장갑’ 재격돌



박병호

KBO, 골든글러브 후보 44명 공개

이승엽 최고령·손아섭 5년 연속 수상 도전
4일까지 투표 진행…8일 16시40분 시상식

넥센 박병호(29)와 NC 에릭 테임즈(29)가 운데 누가 ‘황금장갑’의 주인공이 될까.

KBO는 30일 ‘2015 타이타닉 KBO 골든글러브’ 후보 4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출전 경기수와 타율을 비롯해 포지션별로 다른 기준에 따라 선정된 선수들(정규시즌 투타 타이틀을 홀더는 자동포함)이 치열하게 경쟁한다.

무엇보다 정규시즌 최우수선수(MVP) 자리를 놓고 팽팽한 라이벌전을 펼쳤던 박병호와 테임즈가 1루수 부문에서 재격돌한다는 점이 흥미롭다. MVP 투표에선 총 유효표 99표 중 테임즈가 50표, 박병호가 44표를 받아 불과 6표차로 희비가 갈렸다. 그때보다 투표인단의 범위가 훨씬 넓어진 골든글러브에선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다. 테임즈가 받으면 사상 첫 외국인선수 1루수 골든글러브, 박병호가 받으면 4년 연속 1루수 골든글러브 수상이 된다.

기록을 바라보는 선수들도 있다. 삼성 이승엽은 지명타자 부문 후보에 올라 역대 최고령 수상에 도전한다. 골든글러브 시상식이 열리는 12월 8일을 기준으로 만 39세 3개월 20일이 된다. 종전 최고령 기록은 2013년 지명타자 부문 수상자인 LG 이병규(9번)의 39세 1개월 15일이다. 이승엽은 또 지난해 9번째 황금장갑을 깨면서 역대 최다 수상(1루수 7회·지명타자 2회) 기록을 이미 세웠다. 올해도 이름이 불린다면, 최초로 골든글러브를 10회 수상하는 선수로 기록된다.

이 외에도 롯데 손아섭은 외야수 부문 골든글러브 최다 연속 수상 타이 기록을 노리고 있다. 손아섭은 지난해까지 4년 연속 황금장갑을 손에 넣으면서 고 장효조(전 삼성)가 보유한 5년 연속 수상 기록에 한 걸음자르 다가 섰다.

골든글러브 투표는 30일부터 다음달 4일 오후 5시까지 5일간 진행된다. 수상자가 공개되는 시상식은 8일 오후 4시40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다. SBS TV와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생중계된다.

배영은 기자 yeb@donga.com

2015년 KBO 골든글러브 후보		
포지션	후보	선정기준
투수	안지민 차우찬(이상 삼성) 해커(NC)	방어율 3.50 이하,
	양현종 윤석민(이상 KIA) 임창용	15승 이상 또는 30세이브 이상
포수	양의지(두산) 이지영(삼성) 강민호(롯데)	96경기 이상, 타율 0.300 이상
1루수	구자욱(삼성) 테임즈(NC) 박병호(넥센) 필(KIA)	96경기 이상, 규정타석, 타율 0.320 이상
2루수	오재원(두산) 나바로(삼성) 박민우(NC)	96경기 이상, 규정타석, 타율 0.280 이상
3루수	정근우(한화) 정훈(롯데) 박경수(KT)	96경기 이상, 규정타석, 타율 0.290 이상
	허경민(두산) 박석민(NC) 김민성(넥센)	
유격수	김재호(두산) 김상수(삼성) 김하성(넥센)	96경기 이상, 규정타석, 타율 0.270 이상
	김성현(SK) 오지환(LG)	
외야수	김현수 민병헌(이상 두산) 박해민 최형우(이상 삼성)	96경기 이상, 규정타석, 타율 0.300 이상
	나성범(NC) 이명기(SK) 이용규(한화)	
	손아섭 아두치(이상 롯데) 박용택(LG)	
	유한준 이대형(이상 kt)	
	지명타자 이승엽(삼성) 이호준(NC) 최준석(롯데)	
		96경기 이상(지명타자 출전 최다), 규정타석, 타율 0.290 이상

※투타 개인 타이틀 수상자 자동 포함.



테임즈



코비 브라이언트 ▶

‘아듀, NBA 슈퍼스타’ 코비 브라이언트 은퇴

통산 1292경기 출전 3만2670점 기록

미국프로농구(NBA)의 슈퍼스타 코비 브라이언트(37·LA 레이커스)가 전격적으로 은퇴를 선언했다. 브라이언트는 30일(한국 시간) NBA 전·현직선수들의 블로그인 ‘플레이어스 트리뷰’를 통해 2015~2016시즌이 자신이 선수로 뛰는 마지막 시즌이 될 것임을 발표했다. 브라이언트는 “2015~2016시즌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몇 차례 언급해왔지만, 공식 발표는 이번이 처음이다.

브라이언트는 ‘친애하는 농구에게’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이 글에서 그는 “년(농구) 여섯 살 소년에게 레이커스 선수로의 꿈을 주었다. 난 항상 그것에 대해 감사히 생각한다. 하지만 더 이상은 너를 사랑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올 시즌이 마지막이다. 내 심장은 견딜 수 있고, 내 정신은 참을 수 있지만, 내 육체는 이제 작별인사를 해야 할 때라고 말한다”며 은퇴 의사를 전했다.

1996~1997시즌부터 올 시즌까지 19시즌 동안 레이커스 유니폼만 입고 뛴 브라이언트는 30일까지 통산 1292경기에 출전해 3만2670점(역대 3위)을 올렸다. 5번의 우승과 더불어 1번의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 2번의 파이널 MVP, 4번의 올스타 MVP 등을 수상하며 최고의 스타로 군림해왔다. 그러나 두 시즌 전부터 아킬레스건 파열, 어깨 부상 등에 시달리며 내리막길로 접어들었다. 올 시즌에는 경기당 15.7점, 야투성공률 31.5%, 3점슛 성공률 19.5%에 그치고 있다.

한편 레이커스는 30일 스테이플스센터에서 열린 인디애나와의 홈경기에서 103-107로 저 연패에 빠졌다. 브라이언트는 13점에 머물렀지만 홈팬들은 은퇴를 결정한 그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박병호 연봉 수준은 강정호 2배?

美매체, 5년 총액 3250만달러 규모 전망
500만달러 이하부터 차등 계약 가능성도

“많은 분들에게서 기대하시는 금액은 아니다.” 박병호(29·넥센)가 29일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남긴 말이다. 그는 포스팅 최고액 1285만달러(약 147억원)를 써내며 단독교섭권을 따낸 미네소타와 최종 협상을 남겨두고 있다. 이번이 없는 한 메디컬 체크를 거쳐 계약서에 사인한 뒤 귀국할 것으로 보인다. 미네소타와 박병호 모두 “희망적이다”고 입을 모은다.

연봉에 대해선 이견이 많다. 박병호는 분명하게 ‘제안’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언론 보도대로 금액이 크지 않고, 옵션도 많이 넣기 힘들 것 같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은 500만달러부터 1000만달러까지 다양한 추측을 내놓고 있지만,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

네소타가 빅마켓 구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네소타 지역매체 ‘파이오니어 프레스’는 30일(한국시간) 5년 총액 3250만달러(약 37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강정호(피츠버그)가 5년째 옵션 계약을 포함해 1625만달러(약 188억원)를 받았다. 박병호는 포스팅 금액에서 보아듯이 2배 수준의 연봉을 제시 받을 것”이라고 분석한 데 따른 예상이다. 이에 따르면 박병호의 연봉은 연평균 650만달러가 된다. 적지 않은 금액이다.

4년 또는 5년의 장기계약은 현지 언론의 공통된 시각이다. 그렇다면 첫째 500만달러에 조금 못 미치는 연봉으로 출발해 계약 마지막 해 500만달러를 웃도는 차등적인 연봉 계약도 가능해 보인다. 박병호는 세인트폴스플러스 해설위원이 후배들을 위해 기꺼이 참가하기로 했고, 광주일고는 이에 뒤질 새라 간판스타인 이종범과 박재홍 MBC스포츠플러스 해설위원이 각각 감독과 수석코치를 맡아 팀을 지휘하기로 했다.

박성준 기자 spark47@donga.com

짐머맨, 디트로이트와 5년 1억1000만달러 계약



짐머맨

아메리칸리그 중부지구의 디트로이트 타이거스가 명가 재건을 위한 발 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메이저리그 원터미팅이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알차게 전력을 보강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30일(한국 시간) 미국 주요 매체들은 디트로이트가 FA(프리에이전트) 우완투수 조던 짐머맨(29·사진)과 계약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계약 규모는 5년간 총 1억1000만달러(약 1271억원)로 알려졌다.

이미 마무리투수 프란시스코 로드리게스와 외야수 카메론 메이빈을 영입한 디트로이트는 짐머맨을 영입함으로써 선발진 보강에 성공했다. 짐머맨은 2009년 팔꿈치 인대접합술을 받았지만 최근 4년간 워싱턴 내셔널스에서 시즌 평균 32경기에 선발등판해 195이닝을 소화했다. 2015시즌에는 33경기에서 201.2이

닝을 던져 13승10패, 방어율 3.66을 기록했다. 최소 2억달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데이비드 프라이스(30)나 잭 그레인키(32)에 비해 나이가 어리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1년 동안 맥스 슈어저(워싱턴)와 프라이스가 연속으로 이탈해 선발진에 공백이 생긴 디트로이트는 짐머맨을 저스틴 벌런더에 이어 2선발로 기용할 전망이다.

디트로이트는 2011년부터 4년 연속 지구 우승을 차지했으나, 올 시즌에는 총체적 난국 속에 74승에 그치며 지구 최하위의 수모를 당했다. 이에 따라 오프시즌 초반부터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데, 이는 8월 부단장에서 승격된 알 아빌라 단장의 열의 때문이다. 쿠바 출신으로는 최초로 단장에 오른 입지전적 인물인 아빌라는 8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메이저리그 원터미팅 기간에는 4·5선발급 투수와 좌완 셋업맨을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손건영 스포츠동아 미국 통신원

“모교 위해서라면…” 야구대제전, 레전드가 뜬다

■ 야구대제전 내일 고척돔서 개막

이만수·양준혁·이종범·박재홍 참가
모교 후배들과 함께 그라운드서 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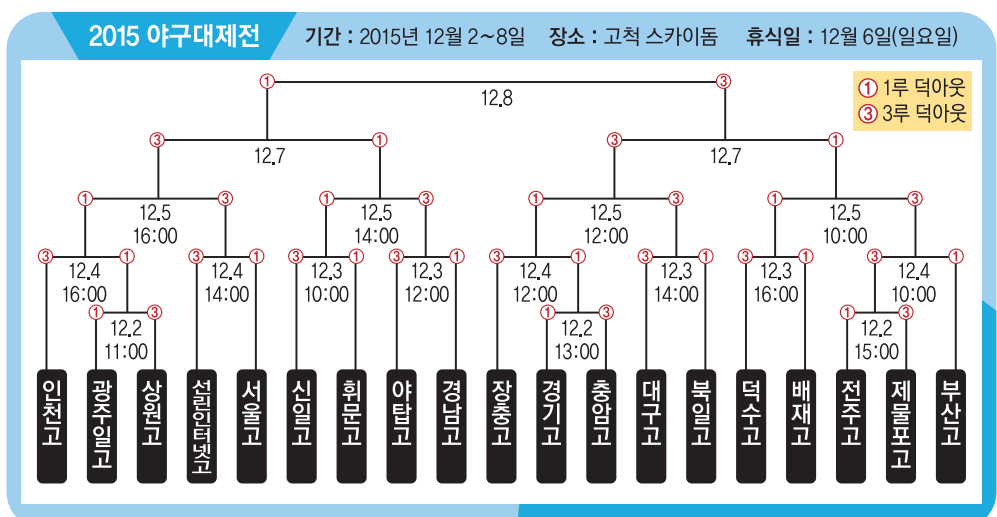
추억과 향수를 자극하고 애교심을 고취시키는 ‘그라운드 동창회’ 야구대제전이 2일 고척스카이드에서 개막한다.

총 19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개막전은 이날 오전 11시 전통의 강호인 광주일고-상원고전으로 펼쳐진다. 양 팀은 영호남 라이벌이자 스타의 산실로 개막전부터 뜨거운 격돌이 예상된다.

야구대제전은 현역 고교선수뿐 아니라 프로야구선수, 은퇴한 추억의 스타들이 함께 모교 유니폼을 입고 같은 팀을 형성해 명예와

자존심을 걸고 한판 승부를 치르는 것이 특징이다. 그렇다보니 은퇴한 스타들도 벌써부터 참가 의사를 밝히는 등 대회를 앞두고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상원고가 배출한 최고 스타인 이만수 전 SK 감독과 양준혁 MBC스포츠플러스 해설위원이 후배들을 위해 기꺼이 참가하기로 했고, 광주일고는 이에 뒤질 새라 간판스타인 이종범과 박재홍 MBC스포츠플러스 해설위원이 각각 감독과 수석코치를 맡아 팀을 지휘하기로 했다.

개막일에는 총 3경기가 벌어진다. 개막전에 이어 오후 1시부터는 경기고와 충암고, 오후 3시부터는 전주고와 제물포고가 맞붙어 16강 진출팀을 가린다. 이후 16강전(3~4일)과 8강전(5일)에는 하루 4경기가 예정돼 있다. 7일 준결승전에 이어 8일 결승전이 차례로 열린다. 국내 최초 돐구장인 고척스카이드



에서 열리기 때문에 우천취소와 추위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대회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8강까지는 7회, 준결승전과 결승전은 9회 경기로 펼쳐진다. 1979년 최초로 개최된 야구대제전

은 1981년까지 3차례 열리다 폐지된 뒤 32년 만인 2013년 부활했다. 2013년에는 동성고, 지난해는 광주일고가 정상에 올랐다. 개막전을 비롯한 주요경기는 스포츠전문채널 IB스포츠를 통해 중계된다.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한국육상의 전설 서말구 교수 별세

한국육상의 전설 서말구(61) 해군사관학교 교수가 심장마비로 30일 별세했다. 서 교수는 1979년 멕시코에서 열린 유니버시아드대회 남자 100m에서 10초34의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이는 2010년 6월 7일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김국영이 10초23을 찍을 때까지 31년간 한국기록으로 남아있었다. 2010년 말 뇌경색을 앓았던 서 교수는 최근 건강을 회복해 후진양성에 노력해왔지만 갑작스러운 심장마비 증세로 세상을 떠났다. 빈소는 경기도 분당 차병원에서 마련됐다.

주원홍 회장, 아시아테니스연맹 부회장 임명

대한테니스협회 주원홍(59) 회장이 28일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열린 2015 아시아테니스연맹 총회에서 이사 연임에 성공하는 한편 부회장에 임명됐다. 아시아테니스연맹 부회장의 임기는 2년이다.